



올림픽과 環境

The Olympics and physical environment

—量과 質이 並行하여 調和되기를—

李 鶴 榮*

(Lee, Hak Young)

로마의 팔라티누스 언덕의 동쪽에는 콜로세움(Colosseum)이라고 하는 원형 경기장이 있다. 이것은 약 1900년전 로마의 베스파시니우스 황제(AD69~79) 때 건설된 하나의 투기장으로써 금세기에 이태리를 찾는 사람이면 한번쯤 둘러봄직 한 유물이기도 하다.

라틴 로마인들의 정신세계, 생활양식, 그 당시의 건축기술을 대변하여 주는 듯, 그 옛날의 천연재료로 아치를 구성한 장인(匠人)들의 조적기술과 솜씨는 오늘날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 영국의 신학자 베데(AD673~735)도 『콜로세움이 허물어지는 날 로마는 망하리라』고 하였다.

콜로세움 이후 1900년이 지난 오늘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는 바야흐로 올림픽을 창조하는 역사속에 살아 가고 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들이 올림픽을 개최한 능력있는 민족의 주체자로서 韓民族의 후예임을 자랑할 수 있고 세계 속의 그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기록들이 발닿는 곳곳에 역사의 흔적으로 길이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따라서 잠실 경기장이 그러한 증거들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남아, 올림픽문화의 찬란한 꽃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비단 필자만의 소망은 아닐 것이다.

하나 우리의 物理的 주변 현실과 精神的인 意識수준을 한번 살펴 보기로 하자.

1. 物理的인 측면과 環境

지난 86년 아시안 게임 직전에 最新工法임을 자랑하며 준공된 일부 체육관의 지붕과 벽면에서 결함이 발생하여 補修工事を 한다고들 소동을 빚은 일들이 아직도 우리들 기억에 생생하다 어찌 그뿐이라. 경기장 주변 일부 잔디밭의 황폐 함은 물지각한 시민들의 파렴치한 행동인가 아니면 적합치 않은 장소에 마구잡이 植栽를 한 잘못된 計劃이었던가, 아니면 管理의 소홀이었던가……一年之計의 계획도 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눈앞의 현실이고 보면, 우리는 조그만 일에서부터 反省하고 每事에 적당히 끝을 마무리 하려는 뿌리 깊은 『적당주의』 터성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지난 일 이긴 하지만 行事 기간 전에 결함이 발견되어 보수하고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 천만다행으로 여겨진다.

위의 一例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 한 부분이지만, 개최국의 긍지와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 앞에서 같은 分野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필자 자신도 부끄럽기 짝이 없었다.

몇 천년 후세에도 빛을 바래지 않고 몇몇이 후

* 建築技術士(建築施工) (株)鳳鳴 研究開發室. 部長.

손에게 물려 줄 수 있는 作品다운 작품은 만들어질 수는 없는 것일까.

어디 그뿐이랴. 우리의 서울은 사람공해, 차량공해, 大氣 및 水質공해 등 각종 환경공해들 속에서 손님을 맞아야 할 판국에 놓여 있다.

반가운 소식으로 오는 7월부터 시판되는 新車種은 의무적으로 배기캐스 정화장치를 부착하도록한다지만, 약 백 오십 만 대에 달하는 기존차량에서 내 뿜는 배기캐스, 공장의 아황산캐스, 가정의 생활용 연료캐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산발적으로 터뜨려지는 시위 진압용 최류탄 등의 캐스공해는 우리뿐 아니라 관광객 운동선수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行事前의 實情이다.

한편 일부 몰염치한 工場들이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廢水, 농경지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농약, 해안의 선박들로부터 流出되는 기름 등이 우리의 生態界를 위협하고 있는 형편이니, 자연과 더불어 숨쉬고 마셔야 할 우리들의 실상은 차츰 좁아만 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다.

하기야 都市化 현상에서 빚어지는 앞의 이야기들은 다른 나라의 예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서 개최한 올림픽 大國들은 환경차원에서선 우리보다는 先進國들이었으니 그들의 선진환경을 눈여겨 보고 귀담아 들어 적은 일로부터 차근차근 改善하고 補完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고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要素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속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써 물고기와 철새떼들이 위편하고 돌아선 우리의 젖줄인 한강이 살아나 그들과 더불어 共生할 수 있게 됐고, 고수부지의 잔디위엔 市民들이 여가를 즐기는 다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생활연료의 변천과 꾸준한 노력으로 주변의 山野도 나날이 푸르려 가 自然景觀의 아름다움은 물론이거니와 극심해던 한밭의 피해도 차츰 사라져가고 있으니 이는 自然을 배반하지 않고 우리들이 이루어 놓은 작품이 아니겠는가.

주어진 자연환경을 아끼고 다듬어 보다 좋은

것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려는 결연한 意志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使命일 것이다.

2. 精神的인 측면과 意識

약 400여일 정도의 日程밖에 남지 않은 서울 올림픽을 놓고 우리의 意識수준을 한 번 살펴보자.

경기 주최국으로써 금지와 정신적인 무장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는가.

선수 및 體育關係 임원이나 모든 관광객들이 空港에 도착하게 되면 제일 처음으로 받아 드려지는 것은 공항의 서비스와 낯선 異邦人을 대하는 시민들의 반응일 것이고 두번째는 차량과 宿泊 편의시설의 이용인데, 모두 좋은 인상과 評價를 받을 수 있는 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地球村의 각 민족들은 地域에 따라서 자기 그들 固有의 독특한 민족성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쉽게 共感할 수 있는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도로상에 나서 보자.

질주하는 차량들이 규정 속도를 위반하기는 다반사이고 交叉路 신호등에서 기어 1단 출발도 늦어 경음기 소리가 요란하며 남보다 한 발 앞서려고 左右차선을 위반하며 마치 곡예를 하듯 운전하는 것을 보면 다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라고 善意로만 보아 줄 수 있겠는가.

몇 년전 星條紙에 실린 『한국에는 눈이 5개 있어야 運轉할 수 있다』라는 記事는 편하게 웃어만 넘기기에는 무언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都市交通 문제는 量的인 팽창과 더불어 路面的 질적인 향상, 도로상의 원활한 배수 처리 가로 등의 적정 조도(照度), 싸인 보드의 보완, 보행 및 운전자의 도로 秩序의식과 같은 質的인 문제들이 잘 調和되어 도시의 리듬이 형성되고 교통 모퉁이 이루어질 때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는가.

로마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우리의 문화, 우리의 意識도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들 일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하는 역사적인 민족의 大祭典 앞에 우리는 모두의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고 각자가 행사의 주체자임을 自覺하는 투철한 主人意識 속에서 올림픽 文化創造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후회없는 올림픽 場을 만들어 나가야 할진데, 외형적인 건설투자는 경기장 중심으로 우선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의 지역개발과 문화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인색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자칫 흔들리기 쉬운 傳統的인 우리네의 손님맞이 습성으로 각종 선물 공세등 지나친 과잉 친절로 오해를 부르기 보다는 오히려 수준높고

의연한 문화 국민 의식을 갖고 민간차원의 外 交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눈 앞의 실리적인 것보다는 진실한 對話와 마음으로부터의 친절이 한결 손님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大命題 앞에 우리는 라틴 로마인들의 魂을 보듯이 오늘 보답 내일을 위하고, 형식보다는 내실을, 개인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瑕疵없는 올림픽 文化를 創造하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다.

재삼 우리는 눈 앞의 利益만 생각지 말고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꽃 한송이를 가꾸고 피워보자.

지혜모아 과학생활

기술담아 산업발전